

제11회 국경선 성균관 한글 백일장

학과	북경외국어 대학교	소재지	대한민국	생년월일	1996년 12월 02일
학명	Beijing Foreign Studies	학명	마요	학점	45학점

[illegible]

제11회 다양성 성공 한 기업 배이징

학부	북경외국어대 학교	소재지	타이베이	생년월일	1976년 12월 01일
학명	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	학점	48학점		

인간에게 구호를 보내는 이야기는 ~~어떻게~~^{언론지} ~~사상~~^{신도}은 있다. 이 영화에서 ~~사상~~^{언론지}은 인간이 가상의 현실에 갇힌 이유를 AI의 업그레이드, 즉 진화를 위해 인간이 행동과 사상을 습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~~영화에서 지적했듯이~~^{그리고} ~~아무리~~^{바라} ~~차이는~~^{진화의} 등 역설적이다. ~~완수~~^{완수} ~~있었다~~^{있다} 그런데 차이가 '차별'로 왜곡되는 경우 '차이'라는 표현을 인간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.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~~성차별~~^{성차별}, 장애인 차별, 동성애 차별, 불평등 차별을 비롯하여 ~~조성되고~~^{조성되고} ~~강화된~~^{강화된} 차별주의와 ~~왜곡~~^{왜곡}된 가치관이 ~~우리는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~~^{우리는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다} ~~우리는 차별이 없다~~^{우리는 차별이 없다}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. 앞서 말한 언급 또한 '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'는 태도다.

따라서, 우리는 이웃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. 이 '이웃'용어 자체는 우리 옆에 사는 친구 이웃이지만 사회 구성원이다. ~~우리는~~^{우리는} ~~행상~~^{행상}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. 매무견부한 이야기이지만 '이해와 존중'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든다.